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이 곧 힘!

롯데웰푸드 | 황준영 선임

글 윤혜원 사진 강권신

1967년 롯데제과로 시작한 롯데웰푸드는 빼빼로, 월드콘, 가나 초콜릿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우리나라 대표 식품 기업이다. 2022년에는 롯데푸드와의 합병을 통해 제과뿐 아니라 HMR, 유지, 육가공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미래 식품 기술 개발에 앞장서며, 국내 식품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직원들의 ‘안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비상안전부문 안전경영팀의 안전진단담당 황준영 선임은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 건강에 전력을 쏟고 있다.

안전경영팀의 멀티플레이어

황준영 선임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작업환경측정 파트에서 첫 출발 이후, 위탁보건관리자로 일하다 자체적으로 보건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인 롯데웰푸드로 동지를 옮겼다. 그가 속한 비상안전부문 안전경영팀은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17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사 보건관리를 총괄하는 황준영 선임은 식품공장 외에도 물류센터 및 급식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식품 사업장이다. 식품 사업장은 혼합, 가공, 성형, 포장 등 손이 많이 가는 공정들로 이루어져 있어 사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주로 발생하는 사고는 끼임, 넘어짐 사고입니다. 식품 혼합기나 파쇄기에 끼이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게다가 작업자의 고령화로 근골격계질환 발생도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늘 고민이 많습니다.”

황준영 선임은 한 달에 절반 이상이 출장일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그의 하루는 「산업안전보건법」 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후 각 사업장 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보건업무를 지원한다.



이달의 한마디

보건관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예방'입니다.





“현장 점검을 나가서 위험요인과 산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개선 요청하면 공장에서 시정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때마다 뿌듯한 감정을 느껴요. 꾸준히 개선율 관리를 하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현장 점검을 나가서 위험요인과 산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개선 요청하면 공장에서 시정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때마다 뿌듯한 감정을 느껴요. 꾸준히 개선율 관리를 하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발 빠른 대처가 안전의 시작

최근 롯데웰푸드 안전경영팀의 가장 큰 화제는 공장 통폐합이다. 영등포공장을 섯다운하고, 대전공장과 평택공장으로 생산라인을 이전 설치 및 증축하고 있다. 소음, 근골격계질환 등의 보건 유해인자들을 찾고 발굴하는 일은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보건관리강화 컨설팅을 의뢰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껌을 만드는 폴리싱 공정은 소음이 많이 발생해요. 이 공정을 다른 공장에 그대로 가져가면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할 때 자리 배치를 조정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어요.”

올해 5월부터는 자체 구급차 운용도 시작했다. 병원과 거리가 있는 양산공장과 평택공장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적용 공장을 더 늘릴 계획이다.

“식품사에서 자체 구급차를 운용하는 건 롯데웰푸드 가 처음이에요. 선례가 없다 보니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시작했어요. 구급차 지도의사를 해줄 의료진을 찾는 것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잘 운용되고 있어요. 절단 사고가 나가거나 넘어지고 다쳤을 때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으니 다행이죠.”

모두가 건강한 롯데웰푸드의 미래

안전경영팀은 현장 작업자에게 위험이 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중이다. 더욱 견고한 안전 보건체계를 갖추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함이다. 황준영 선임은 안전경영팀이 지금의 체계를 갖출 수 있었던 건 리더의 역할이 컸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상무님과 팀장님이 입사하셨어요. 안전보건 조직의 규모가 큰 곳에서 계시던 분들이라,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한 부분이 많아요. 꾸준히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의식도 더욱 높아졌다. 그 바탕에는 황준영 선임의 세심함이 있었다. 제품의 유해성이나 응급조치 요령 등이 기재되어 있는 MSDS를 직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에 나갈 때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MSDS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그중에서도 어떤 것이 취급 제품의 MSDS인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작업자가 모르는 경우, 교육을 통해 인지시켰다. 황준영 선임의 지원은 현장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다.

“현장 보건관리자분들이 제게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실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한 롯데웰푸드의 미래를 꿈꾸며 현장을 빛내는 황준영 선임. 그가 흘린 구슬땀이 모여 안전보건의 든든한 자양분이 되어주고 있다. 🍷